

중국 안동권씨 종친회 대총회 방문



권오상 사무총장, 권오덕 청도종친회장, 권동화 상임부회장, 권오갑 이사, 권영연 총재, 권행완 편집국장(왼쪽부터)

권오덕 중국 청도 안동권씨 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갑(權伍甲, 북아공파 35세), 권동화(權東華), 권영연(權英艷, 북아공파, 34세) 등 회원 4명이 4월 20일 토요일 10시에 대총회를 방문했다. 일행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약칭 OKTA)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정식 일정이 끝나자 대총회를 방문한 것이다. 옥타(OKTA)는 재외 한인 경제인 단체로서 70여개국에 168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있고, 한국무역진흥협회 코트라 산하에 있는 단체이다.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은 토요일임에도 출근하여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사업하시느라 바쁘실텐데 대총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지난번에 권오덕 회장이 다녀가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더 반갑다고 말했다. 권오덕 회장은 대총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 이 분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세계 한인들이 모이는 옥타(OKTA)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관계로 반갑다며 한 분 한 분 소개했다.

권영연 대런지혜어업집단유한공사 총재(옥타 대런지혜 감사장)는 중국 안휘성과 하남성에 권현(權顯)이 있다. 권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개의 현(縣)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동권씨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 유래가 정말 궁금했다. 이에 권행완 편집국장은 시조 태사공의 원래 이름은 김행(金幸)이다. 신라 왕족의 후손이다. 그런데 신라와 후백제와 고려가 대립하던 후삼국시대에 후백제의 견훤과의 전쟁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견훤을 물리치고 왕건으로 하여금 병산대첩이라 불리는 대승을 거두게 도와준 공로로 고려 태조 왕건이 시조 태사공이 기미(幾微)에 밝아 권도(權道)에 통달했다 하여 권으로 사성하고 고창군을 안동부로 승격시켜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권씨가 되었다. 그때가 930년이다. 그래서 올해가 권기(權紀) 1095년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동권씨 성화보는 한국 최초의 족보이며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최고로 많이 배출한 명문가이며 양촌 권근 선생이 조선 최초의 대제학을 지냈는데 아들 손자까지 삼대가 대제학을 지낸 조선 최고의 명문가라고 소개하며 '안동권씨 15개 파(派) 원류도(源流圖)'까지 설명해 주었다. 이에 일행은 오늘에서야 안동권씨의 유래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권영연 총재는 중국 대런에서 무인도 5개와 유인도 1개를 소유하고 가리비, 전복, 해삼, 명게 등 바다양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체 12개를 경영하면서 12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할아버지(권중명)는 8남매 중 일곱 번째였는데 1942년경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20여 년 전에 안동을 방문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형제들은 대부분 돌아오고 둘째 고모가 현재 서울 신도림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권태목權泰木, 1952년생)는 안동권씨만 보면 우리는 다 일가라며 그 무덤에 이끼리듯 남다르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권영연씨도 안동권씨에 대한 정체성과 안동권씨에 대한 자부심으로 대대했다. 대런에서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안동장씨 삼대사 후손들끼리 모임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오갑 축진은 옥타의 중국 소주지회 이사이며, 중국 강소성 태창시에서 섬유사업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권태진) 때 중국으로 이주했는데 고향은 안동시 풍천면 가곡마을, 즉 가일마을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권영원씨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안동 가일마을에 왔다 그 때 할아버지 전여동생(고모할머니)과 동생(작은할아버지)을 봤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큰 저수지가 있고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권동화 축진은 옥타 청도지회 상임부회장이며 청도에서 금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권경술權敬述) 고향은 경북 선산면 생곡동으로 일제강점기 때 중국으로 건너가 길림성 유하현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안동장씨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다 한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여섯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고향에 가서 족보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한다.

중국 안동권씨 축진들이 대총회를 방문한 여운이 크다. 시절을 잘 못 만나 고향을 떠났다가 손자가 장성하여 대총회를 찾았다. 앞으로 자주 교류하면서 안동권문의 후예로서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기를 기대해 본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영현 미주(美洲)안동권씨종친회 회장 대총회 방문

권영현(추밀공파 문충공 제간공계, 34세) 미주 안동권씨종친회 회장이 4월 12일 오전 9시 대총회를 방문하여 권영창 대총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수 상임위원과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과 담소를 나누었다. 권영현 회장은 먼 길을 오셨는데 대총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권영현 미주안동권씨종친회 회장은 미주 안동권씨종친회는 현재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종친들이 약 100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다. 그 많은 성씨 중에 우리 안동권씨만이 유일하게 종친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총회에서 미국을 방문하여 골프를 친 적도 있으니 앞으로도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자고 건의했다. 특히 안동권씨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안동권씨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 한글로 읽기



권오상 사무총장, 권영현 회장, 권영창 회장, 권중수 상임위원(왼쪽부터)

쉽게 이야기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한글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 미국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창 회장은 안동권씨 한글본 소개 책자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권씨부녀봉사대 발대식 처음 가져



권철환 회장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안동권씨 딸과 며느리로 구성된 여성봉사단체인 '안동권씨부녀봉사대 발대식'이 3월 25일 오전 11시 안동시 남산면 기리리길 '농촌'에서 여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안동종친회 관내 24개 읍, 면, 동 가운데 부녀회가 조직된 지역은 많지만 안동종친회가 부녀회를 조직하기는 종친회 생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녀봉사대를 조직한 것은 권씨 딸들과 며느리의 화합은 물론, 오는 5월 4일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됨으로 행사 준비동안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행사 당일 나이 많은 어른들을 안내하는 등 권문의 모범이 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날 권철환 안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 권기택 안동종친회 수석부회장, 김동학 사무국장(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부인 등이 참석,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다. 특히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체육대회 때 안동권씨 본향(本鄕)인 안동

에서 딸네들과 며느리가 외지 손님을 잘 모셔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이외에 모든 안동권씨는 운동장에 나와서 외지에서 오신 안동권씨와 하루를 즐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은 지난번 안동시청에서 신년인사회 때 많은 축진을 모시고 온 길안부녀회에 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안동종친회는 참석한 부녀회원들에게 두툼한 삼겹살과 겨울미나리를 제공,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게 했다. 이날 권기택 수석부회장 겸 이화축산 대표가 점심 값을 모두 계산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여유시간으로 노래자랑을 하여 푸짐한 상품을 타 가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영현 미주종친회장, 중국 청도안동권씨종친회 방문

권영현 미주 안동권씨종친회 회장은 4월 13일 중국 청도안동권씨종친회(회장 권오덕)를 방문했다. 청도종친회와 미주 종친회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안동권씨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며 후손으로서 안동권씨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앞으로 후손들끼리 돈독한 유대관계와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 대총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과 인적 교류를 통해 안동권문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기를 기대해 본다. 권오덕 중국 청도안동권씨종친회장



동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권문의 당선인 현황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동권문의 당선인은 모두 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5곳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안동권문의 며느리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산 연제구 유권자의 54.41%(68,402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됐다. 김 당선인은 제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순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시 확정된 행정구역 기준)



윤상구 국민의힘 권영세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은 현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51.77%(66,583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5선 의원이 됐다. 18대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최고위원·사무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대선 중앙선대위 총합상황실장, 박근혜 정부 주중 대사,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총합선거대책본부장 겸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 달서구부 국민의힘 권영진

권영진 국민의힘 후보가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유권자 67.08%(49,816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33·34대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18대 국회의원, 8년의 대구시장의 경험과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맡겨주시면 지금까지 보던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권철승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유권자 61.53%(80,110표)의 지지를 받아 22대 국회의원원에 당선됐다. 권 당선인은 "민생경제 회복, 민주주의 복원, 정치발전, 그리고 100만 화성의 더 큰 도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3대 중소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이다.



강릉시 국민의힘 권성동

권성동 현 국회의원이 유권자 54.24%(64,743표)의 지지를 받아 5선에 성공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에 열린 재보궐선거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후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21대 국회의원까지 연속 4선에 당선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5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 기대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유권자의 70.09%(104,493표)를 득표하여 3선 의원 출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초선이다. 권 당선인은 전남에서 김윤덕 전 의원 이후 46년 만에 첫 여성 국회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여년간 당 직생활을 한 정동 민주당원으로 민주당 여성국장, 김대중 정부 행정관과 문재인 정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유세 때 접은 주민들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3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3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34개 지역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축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잔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 일시 : 2024년 5월 4일(토) 오전 10시
- ❖ 장소 : 안동 시민운동장 (안동시 정하동 417-1)
- ❖ 주최 :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 ❖ 주관 : 안동권씨 능곡회
- ❖ 후원 :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안동종친회
- ❖ 내용 :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 ❖ 대상 : 전국 34개 지역 청장년회 및 전국 종친회

〈후원계좌 : 농협 351-1294-1384-73 예금주: 능곡회〉
 〈광고접수 : kwondorr@hanmail.net〉
 대 회 장 : 권태형 010-8578-3026
 준비위원장 : 권영훈 010-9917-6500
 사 무 국 장 : 권우경 010-6319-3522

능곡회 체육대회 준비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번지(안동권씨회관 2층)
 문의 : 사무국장 010-6319-3522



권태형 대회장



권영훈 준비위원장

2024. 5. 1.

안동권씨 능곡회